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기간 : 2019년 11월 9일(토) ~ 11월 13일(수), 3박5일
2. 출장자 : 윤종주 전임책임연구원
 - ※ 충청남도 해양정책과 심준형 과장, 박중호 주무관 동행
 - ※ 일정 일부 동행 : 양승조 도지사, 김동일 보령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등
3. 출장국 : 네덜란드, 벨기에
4. 방문기관
 - 네덜란드(갯벌 및 하구복원 현장)
 - 1) 워터던(Waterdunen) 습지공원 조성지
 - 2) 라메호르(Rammegor) 습지복원지
 - 3) 휘어스호 잔트크리크담/Katse Heule) 및 호 내 마리나/관광지/레조트
 - 4) 오스터스켈드 하구둑
 - 5) 불케락호(담수호 해수유통 예정지)
 - 네덜란드 젤란드 주 정부청사(미델버그)
 - 1) 델타 프로젝트 진행 현황과 워터던 습지공원 조성에 대한 자료 취득
 - 2) 지사님 방문에 따른 현장 해설 프로그램 진행계획 논의
 - 3) '20년도 예정인 연안하구 생태복원 국제컨퍼런스 관련, 업무협조 협의
 - 4) 충남도-젤란드 주정부 간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사전 협의

5. 출장일정

월일	주요 일정 내용	비 고
Day 1 11.9.(토)	▶ 출국 : 인천(14:05) ✈️ 암스테르담(18:30) ▶ 숙박지: 암스텔담 호텔 (저녁/암스텔담)	• KL200
Day 2 11.10.(일) 네덜란드 젤란드주/ 미델버그	▶ 암스텔담(09:00) → 미델버그 (11:30) 1) 휘어스호/Katse Heule 2) 볼케락호(담수호 해수유통 예정지) *점심식사 ▶ 해수유통 현장 방문 (13:30~15:00) 3) 라메호르(Rammegors)호 4) 워터던(Waterdunen) 습지공원 ▶ 숙박지: 미델버그 호텔 *저녁/미델버그 중앙광장	
Day 3 11.11.(월) 네덜란드 젤란드주/ 벨기에 브뤼셀	▶ 미델버그 호텔 출발 (08:00) 5) 젤란드 주정부 청사 방문(지사님 방문계획 협의) *점심식사: 베르헌 읍중 ▶ 지사님 영접 (13:30) 4) 워터던(Waterdunen) 습지공원(15:00~17:00)* ▶ 워터던 출발 (17:00) → 벨기에 브뤼셀 (19:00) ▶ 숙박지: 브뤼셀 호텔 *저녁/브뤼셀, 지사님과 만찬	*지사님 방문 예정지
Day 4 11.12.(화) 벨기에 브뤼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브뤼셀(09:00) → 네덜란드 질랜드주 이동(11:00) /휘어스 호 내 마리나/관광지/레조트 *점심식사 ▶ 오스터스켈트(Oosterschelde)댐 ▶ 귀국: 암스텔담 (21:10) ▶ 한국 도착: 익일 (15:40)	• KL855

6. 출장결과



[주요 방문지]

1) 워터던(Waterdunen) 습지공원

: 간척사업으로 농경지화한 곳을 해수유통을 통하여 염습지를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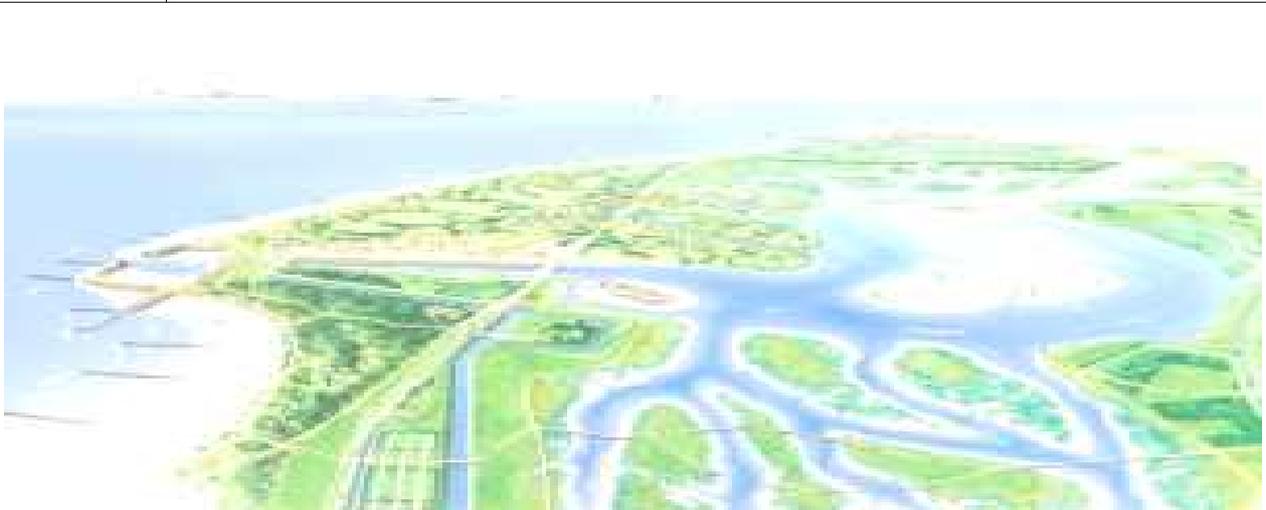
① 현황

- 질란트 주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브레스켄스(Breskens) 지역의 간척지에서 워터던 (Waterdunen)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수순환의 단계를 넘어 기존 간척농지를 대규모 염습지 또는 갯벌로 복원함
- 이 사업을 통해 전체 250ha(2.5km²) 지역을 습지로 복원해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예정
- 네덜란드 중앙정부와 질란트 주정부의 예산, EU기금과 민간자본 등 전체 사업비 1억2천만 유로(1,500억 원)가 투입되었음
- 모래 언덕 형태의 제방 일부를 헐어 해수순환이 가능한 4개의 배수갑문을 설치해 바닷물을 간척지로 끌어들임
- 이를 통해 습지와 소규모 해수운하가 건설되었으며, 습지에는 카페와 상점, 호텔을 비롯해 400여개의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기존 농업적 이용보다 훨씬 큰 생태관광지로서의 소득원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 해수운하의 수위는 해수면으로부터 ±0.77m로 유지하며, 전기보트 및 친환경 테크를 이용하여 습지와 철새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
- 이 사업은 제우스협회라는 민간단체가 처음 제안해 정부가 이를 수용함
- 사업부지는 제방을 막아 형성된 간척지로서 농지로 활용하고 있던 곳이었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농지 보상에 어려움도 있었음
- 사업대상지는 농업을 주로하며, 벨기에의 해수욕객 일부가 방문하는 수준의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이었으나, 이 사업을 통해 관광객이 늘어나고 각종 시설에 대한 고용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사업 개요>

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erdunen Project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ha(2.5km²) ※ 부남호(1,527ha)의 약 1/6 규모 • '13 ~ '21(공정률 80%) ※사업비 약 1.2억 유로(1,500억원)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태자원 복원·생태관광을 통해 고령화·고용감소 등에 대응 • 사구해안 보호 /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자연 갯벌 복원 • 연안생태(갯벌·철새 등) 및 레크레이션 활동 간의 조화
사업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 사구 보강 작업 및 인공해안사구 건설('13~'15) • 내륙 갯벌 및 습지 복원 사업(~'16) • 부분 해수유통 시작('19.9~, 관리수위 유지하며, 현재 테스트단계)※ 해수소통구(폭4m × 높이4m × 3개)를 통한 자연 해수유통 유도 • 휴양시설 및 레크레이션 시설 설치(~'20)
주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유통 운하, 갯벌체험장, 조류관찰데크, 캠핑장·숙박시설, 연구소 등



② 현장방문 세부 내용

- 젤란드 주정부의 워터던 프로젝트 담당자인 Luuk Prevaes(Zealand주정부 사업담당 과장), Anya Langerak (Zealand주정부 M.P), Chris Vreugdenhil (Het Zeeuwse Landschap 창립자 등 5명이 주차장 영접 후 버스 동승하여, 세부 공간 활용방안 설명



③ 시사점(도정 접목방안)

⇒ 농업적 이용가치보다 훨씬 큰 생태관광지로서 지역소득원 창출

- '19.9월에 부분 해수유통 시작하였으며, 관리수위를 유지하며 현재 가동 테스트 단계에 있음. 특히 연안습지의 복원 효과로 철새의 새로운 중간기착지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간척지를 농지로 활용하는 것보다 갯벌로 복원해서 철새도래지 등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이 더 큰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보여줌
- 향후 부남호, 간월호 하구 복원 추진에 따라 하구복원 대상지 주변의 간척농지 부지에 대한 갯벌습지로의 환원하는 사례로 적용이 가능
- 하구호 수질복원 이외에 간척지의 갯벌습지로의 환원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갯벌생태 복원효과와 함께 갯벌체험객, 철새탐방객 등 레저관광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음

- 워터던 사업지 벤치마킹을 통해 기존 농경지를 습지, 갯벌체험, 캠핑, 호텔 등으로 탈바꿈 가능
- 부남호 역간척을 통해 습지복원과 함께 갯벌체험장, 요트 등의 해양레저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워터던과 같이 고령화·농어가소득 감소에 대응하고 생태복원과 새로운 해양레저관광 모델을 국내 최초로 제시할 것임
- 앞으로 공동연구, 정보공유, 공동사업 발굴 등을 통해 양 정부간 협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생태복원에 관한 전세계적인 선진 사례 창출을 충남도를 중심으로 추진

④ 현장사진



<젤란드 주정부 관계자 미팅 및 인사말씀>



<워터던 현장 방문 및 설명>



<철새 방문지로서의 가치 설명>



<기념사진 촬영>



<워터던 사업지 현장 전경>



<워터던 사업지 현장 전경>



<복원 전>



<복원 후>

2) 라메호르(Rammegors) 갯벌습지 복원지

: 닫힌 방조제에 해수유통구를 설치하여 염습지를 복원

① 현황

- 라메호르는 해수인 오스터스켈트호와 연결된 연안습지였으나, 1970년 담수 운하의 건설을 위해 해수의 유입이 단절된 곳임(방조제 건설)
- 해수 유입 단절 이후 유희지로 방치되었으나, 방조제 주변 갯벌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라메호르까지 해수의 흐름을 확장시키기 위한 갯벌복원 프로젝트를 결정함(2010년)
- 사업의 목적은 라메호르 지역 내 해수유통구를 설치하여 염습지를 복원하고, 주변 해역의 모래유실을 예방하는 것임
- 이 프로젝트는 2014년 12월에 완료되었으나, 해수유통구 주변 제방이 무너지면서, 해수유통구를 닫고 재보강 공사가 진행되어 2016년 12월에 다시 해수를 소통하였음(수위는 수문을 통해 조절)
- 켈란드 주정부는 라메호르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연구와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음

<사업 개요>

사업명	• 라메호르(Rammegors) 프로젝트
사업기간	• 2010~2016
사업목적	• 닫힌 방조제에 해수유통구를 설치하여 염습지를 복원 • 주변해역의 모래유실을 예방
사업 면적	• 자연보호구역 50ha(0.5km ²)
사업 연혁	• 담수운하(Scheldt-Rhine Canal) 건설에 따라 방조제 건설 및 해수유입 차단(1970년) • 내부 호소 내 수질악화 문제 발생 • 해수유통을 통한 연안습지 복원 사업 결정(2010) • 해수유통구 설치(2014) 및 보강 사업(2016) • 현재 수문 조작 운영중으로 수질복원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 중
주요 시설	• 해수유통구 수문 1기
운영 내용	• 해수소통구를 통한 자연 해수유통 유도 • '14년에 부분 해수유통 시작(관리수위를 유지) • 관리수위(조위)를 선정하여 해수유통 실시 중 • 외부 지하수로의 염수유출 차단 시설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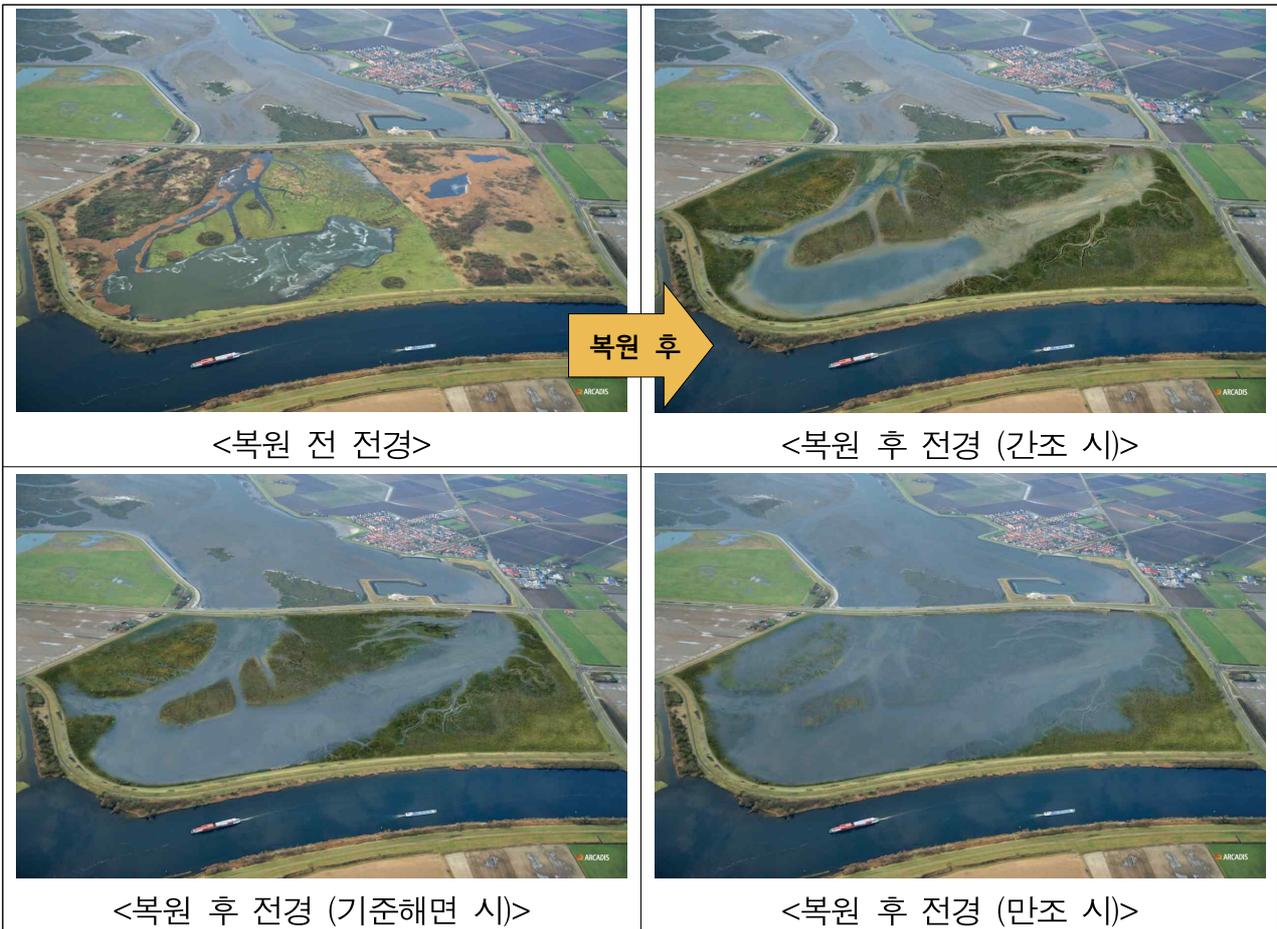
② 현장방문 세부 내용

- 자연적인 해수유통을 통하여 과거의 연안습지로의 회기가 진행 중에 있음
- 사업 대상지는 바닷물과 민물 운하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닷물이 담수 운하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규모 수로를 제방 양측에 조성하여 염수의 지하유입을 차단하도록 함

③ 시사점(도정 접목방안)

- 해수유통을 차단 후, 간척을 진행하지 않고 유희지로 유지한 드문 사례임(농경지로 활용하지 않음)
- 연안습지의 환원 가치를 크게 평가하여, 충남도 내 폐염전 갯벌 복원 등의 사례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메호르(Rammegors) 프로젝트 사업 전후 비교>



④ 현장사진



<라메호르 사업지 현장 전경>



<라메호르 사업지 현장 전경>



<해수유입구(내측)>



<해수유통구 수문(해역측)>



<해수유통구 건설 사진>



<라메호르 사업지 안내서>



<라메호르 사업 설명 입간판>



<라메호르 사업 설명 입간판>

3) 휘어스호(잔트크리크 댐) 및 배후에 위치한 내륙 마리나항/리조트 : 해수유통(터널 설치 방식)을 통한 호소 내 수질 복원

① 현황

- 재난·해일방지·담수 확보와 함께 휴양 및 관광 목적으로 62년 오스터스켈트만 내측을 막아 건설됨
 - ※ 면적은 약 2,360ha로 부남호(1,527ha) 대비 약 1.5배 정도 큼
- 담수호 수질악화로 인한 악취, 녹조 발생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2000년대부터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수많은 논쟁을 거쳐 해수유통(터널 설치 방식)을 결정
 - ※ 켈란드주에서 방안을 결정하고 중앙정부와 협업으로 추진
- 해수유통을 위한 박스암거(5.5×3.0m/2련)를 설치하여 여름에는 초당 40톤, 겨울에는 초당 25톤의 해수를 유통
 - ※ 해수유통 3개월 이후부터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2004년 이후 질소와 인이 각각 42.2%, 64.4% 감소하여 생태계 복원과 함께 다이빙, 요트 등 레저 관광을 위한 방문객 급격히 증가
- 네덜란드 중앙정부에서는 해수유통에 의한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델타프로젝트의 기본방향을 변경하는 계기가 됨
 - ※ 오스터스켈트댐, 볼케락호, 하링플리트댐 등 갯벌습지 복원지



[휘어스호 잔트크리크댐(카제홀로) 위치 및 해수유통구, 통선문 조감도]

② 현장방문 세부 내용

- 방문 당시 잔트크리크댐 수문을 통한 해수방류는 시행되지 않았음(수위유지를 위한 조위조건이 맞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해수유통 운영 중)
- 잔트크리크댐 현장 실사 후, 통선문 구조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함

③ 시사점(도정 접목방안)

- 하구호를 막아 담수호가 된 휘어스호의 수질악화를 해수유통을 통해 해결한 사례는 충청남도 천수만의 4개 담수호의 수질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음
- 휘어스호의 면적은 부남호의 약 1.5배 정도 규모로서, 부남호 하구복원의 벤치마킹 사례로 삼을 수 있음
- 당초 폭 5m 규모의 해수유통 터널 2기 도입을 통해 4~5년의 수질복원을 예상했지만 1년이 안된 기간에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난 점을 특히 주목
- 휘어스호의 조위차이는 약 3m 내외로, 부남호 조위차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함. 따라서 해수유통의 효과는 부남호의 경우, 휘어스호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부남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부남호 내외측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은 수로가 위치한 부남호 중앙부 주변에 폭 10~20m 내외의 암거식 터널을 매립설치하고, 승강식 수문을 도입하여 해수유통량과 내수면 수위차를 유지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
- 통선문은 향후 부남호 내측의 공간활용(내륙 마리나항 등)을 위해 건설이 가능
- 통선문은 안면도로 향하는 지방도 96번 도로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우회도로를 건설하며, 전고가 높은 선박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도개교 형식의 통선문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과 함께 다이빙, 요트 등 휴양방문객 증가
- 수질 개선 이후, 하구호 내측 수역은 생태관광지로의 재개발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천수만 내 내륙 마리나항을 통한 최적의 요트 정박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됨
- 부남호의 경우 내륙 마리나항 개발과 함께 부남호 동측으로 갯벌이 자연 복원될 것으로 보이며,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해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음

④ 현장사진



[해수유통 터널 운영 사례]



[통선문 구조 및 운영 사례]



[통선문 구조 및 운영 사례]

[하구호 내 내륙 마리나항 조성 사례]

4) 볼케락호 크라머(Kremmer) 방조제(하굿둑)

: 호소 내 수질악화로 담수호 해수유통 추진 예정지

① 현황

- 볼케락호는 1987년 델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조제가 완공되었으며, 볼케락호의 서측으로는 그레블링겐호(부분해수) 및 오스터스켈트호(해수)로 연결되어 있음
- 방조제 완공 후 담수호로 유지되고 있으며, 볼케락호의 물은 농업용수로 상당부분 이용됨
- 볼케락호는 남서쪽으로 해수로 유지되고 있는 오스터스켈트호, 북서쪽으로는 부분해수 유통이 되고 있는 그레블링겐호와 각각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구분되어 있음
- 볼케락호는 담수호로서 물의 흐름이 차단되어 있어, 해마다 녹조가 발생하는 등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해수유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농업용수로의 활용이 지속되고 있어, 해수유통을 위해서는 담수호의 농업적 이용에 대한 대체수원 확보방안이 필요함
- 이러한 주민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해수유통 결정이 2032년 이후로 연기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주민협의 및 도수로 건설 등 대체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



[담수/해수/부분해수 등 3개 호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크라머 방조제]

② 현장방문 세부 내용

- 오스터스켈트호와 볼케락호를 드나드는 선박이 상당히 많았는데, 통선문을 통한 왕래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다만 오스터스켈트호는 해수(짙물)이고, 볼케락호는 담수(민물)로 구분되는데, 통선문 운용에 따른 해수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통선문 내에 수위 유지장치에 해수와 담수간의 비중차이를 이용한 해수/담수 분리 공법을 적용하고 있음

③ 시사점(도정 접목방안)

- 이곳은 담수/해수/부분해수 등 특성이 각기 다른 수역이 접하고 있는 특별한 장소임
- 즉 해수유통으로 열린 하구의 가장 상단 층이라고 할 수 있음
- 열린 하구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용수의 농업적 이용에 따른 이해 관계가 얽여있는 곳이기도 함
- 충남도의 경우에도 향후 부남호 등 천수만/가로림만 등에서의 하구복원이 진행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하구호 상부 지역의 농업적 담수 이용 수요와의 이해상충 발생이 가능함
- 사회적 합의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논의가 필요하며,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이 10년 이상의 오랜 협상 기간을 두고 보상/대체 용수 공급/대체 작물 도입 등의 지역 주민 상생방안을 나누는 것이 중요함
- 하굿둑 내부로 선박의 왕래를 위한 통선문 중, 오스터스켈트호/볼케락호와 같이 해수와 담수로 엄격히 구분된 구역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선박왕래에 따른 해수와 담수가 섞이지 않도록 하는 시설의 도입이 필요함
- 이 경우에는 해수와 담수의 밀도차를 이용한 네덜란드 통선문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도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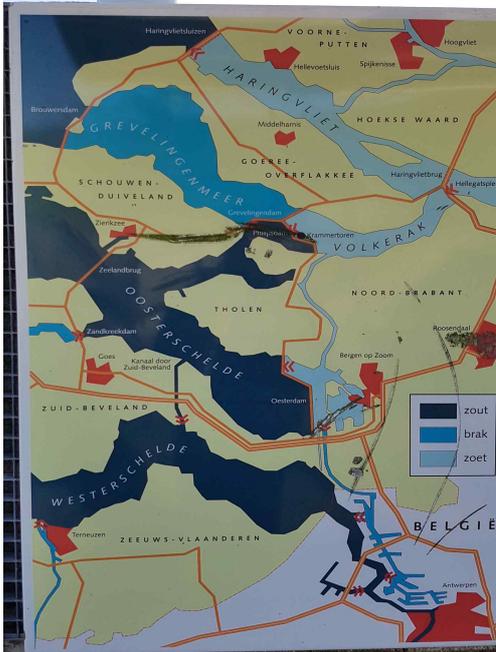
④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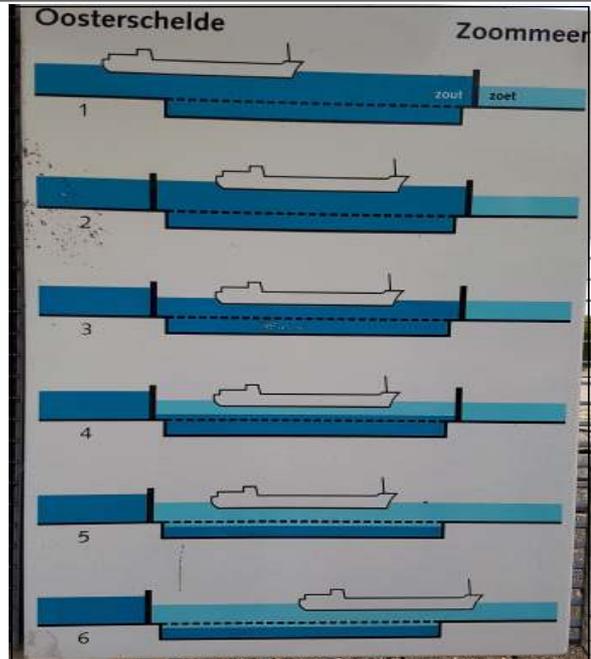
<볼케락호 크라머 방조제 현장 전경>



<볼케락호 크라머 방조제 현장 전경>



<젤란드주 담수호/해수호 현황>



<비중차이를 이용한 염수유입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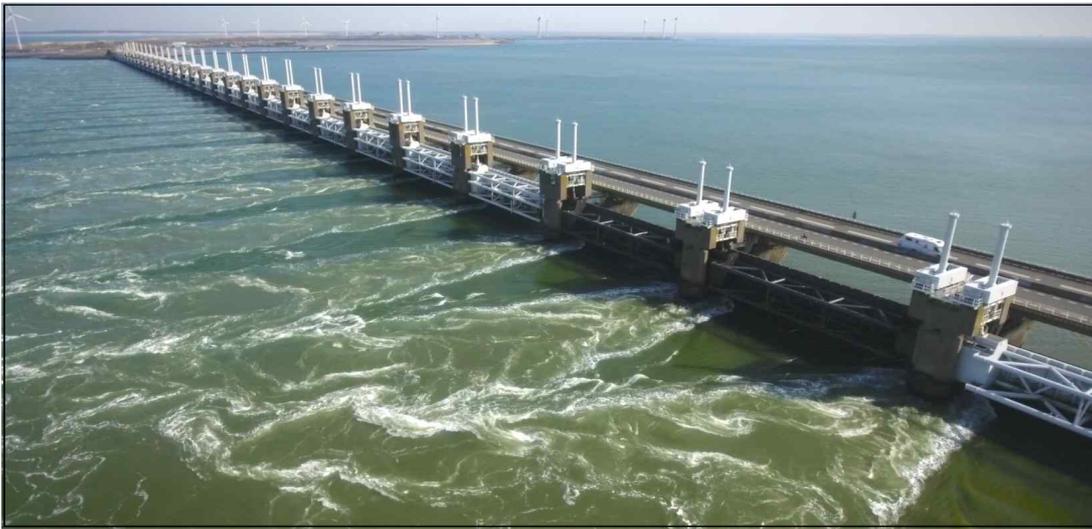


<크라머 방조제 통선문 전경도>

<오스터스켈트 해역측 전경>

5) 오스터스켈드 댐(하굿둑)

: 하구전체를 막기 위한 방조제 대신 해수유통이 가능한 댐 형식의 수문 도입 사례



[오스터스켈드 댐(하굿둑)을 통한 해수유통 - 평상시에는 개방, 해일시에는 폐쇄]

① 현황

- 1976년 착공당시 하구 전체를 막아 간척과 해일을 예방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사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여 수문을 24시간 개방되도록 건설함(초기 예산의 3배가 소요됨)
- 해일 예보와 점검시기를 제외하고는 상시 개방돼 자유로운 해수유통 가능
 - 하굿둑 내측 해역을 생태관광지로 개발하고, 상류부 농경지에는 우회 도수로(운하)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며 차차 농업적 이용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함
 - 하굿둑 주변 토지를 생태계 서비스를 활용한 관광지화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농업적 이용보다 더 큰 소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선박들이 수로를 따라 독일 내륙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통선문 설치

② 현장방문 세부 내용

- 방문 당시, 오스터스켈드 댐을 통한 외해역에서 내륙호(오스터스켈드호)로의 해수유입이 되고 있었음(위의 사진은 내륙에서 외해측으로 해수가 배출되는 이미지임)
- 해일(홍수 재난) 피해 예방 및 해수유통을 동시에 만족시킴
- 오스터스켈드호 생태전시관을 방문하여, 해양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전시 정보를 확인하였음

③ 시사점(도정 접목방안)

- 해일로부터의 침수범람 피해를 막겠다는 네덜란드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규모 하굿둑(총길이 약 7.8 km)임
- 국내의 대표적 대규모 방조제는 새만금 방조제(길이 약 31 km), 시화 방조제(길이 약 11 km), 아산방조제(길이 약 2.6 km), 삼교천방조제(길이 약 3.2 km) 등이 있음
- 전 국토의 1/4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인 네덜란드의 경우, 해일을 막기 위한 방조제의 건설이 필수임
- 네덜란드와 달리 우리나라는 해일피해 우려가 있는 곳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만, 물의 원활한 유통을 통한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기본으로 하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하굿둑의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하구 주변의 농업적 이용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작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농업적 이용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부 농지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상류 지역의 농업적 이용 수요가 큰 지역은 선부르게 하구복을 추진하기보다는 대체 용수 공급 방안을 검토하여 더 이상 호소 내의 수자원을 이용하지 않을 때까지 시민사회와 협의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

④ 현장사진



<오스터스켈드 댐 전경>



<오스터스켈드호 전시관 내부>

Welcome!

**Wind in your hair
Salt on your lips
Mud under your feet
Sand between your toes
Water against your skin
Sun in your eyes**

The Oosterschelde is the biggest and wettest Netherlands National Park. It is a world of tide, wind and especially water, lots of water. By the tide the scenery is always different. At low tide you can see the tidal flats, at high tide it is a game of wind and water. Underwater a wonderful colourful world. Behind the dikes memories of life with the sea.

Facts & figures
Surface area: 37000 acres (370 km²) of which 35000 hectares of water
Shore length: 170 km
East-west 40 km, North-South 27 km. With the tide flows 900 billion liters of water in and out of the Oosterschelde

Tide battle:
Average depth: -19 mtr NAP
Max. depth: -42 mtr NAP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 National Park is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concept. Around the world valuable natural areas and ecosystems are preserved, protected and developed by identifying them as a national park.

<오스터스켈드호 관리 현황 안내>

**Activiteiten
Activities**

Justen of korren op het strand, banjeren doorkat slik, het wonderle underwaterleven door je duikbril, proeven van zilte zaligheden, kajaken naar een eilandje, sporen naar bruisen en natuurlijk op zoek naar zeehonden. En nog veel meer!

Vind de leukste activiteiten op en rond de Oosterschelde op www.npoosterschelde.nl of download de gratis iPhone App: Ontdek de Oosterschelde.

Beach combing, strolling through the mud, the wonderful underwater life through your diving mask, taste salty delights, kayaking to a sandbar, tracking to meadows and of course looking for seals. And much more!

Find the best activities on and around the Oosterschelde at www.npoosterschelde.nl or download the free iPhone App: Ontdek de Oosterschelde.

<오스터스켈드호 내 해양체험활동 안내>



<오스터스켈드호 내 해양체험활동 안내>



<호 내 해양보호생물-점박이물범>